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봉부필파(鳳復必破)라는 말이 있다. 봉황이 알에서 나오려면 반드시 껍질을 깨뜨려야 한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을 얻으려면 먼저 껍질을 깨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제학 용어가 있다.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그것이다. 이는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 조세프 쉴페터(J. Schumpeter)가 경제 발전을 설명하게 위해 만들어낸 용어다. 혁신을 통하여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말한다. 그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창조적 파괴를 꼽았는데, 특히 경제발전 과정에서 기업가의 창조적 파괴행위를 중요시했다. 오늘의 삼성을 있게 한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1993년)이 여기에 속한다. 이 때 '세계 제일이 되려면 배우자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고 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 변화의 절박성을 강조한 것이다. 변화란 기존의 틀이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소위 파괴인 것이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파괴다. 그래서 '창조적'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창조적 파괴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창조적 파괴이론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두루 통용된다. 기존의 다리를 파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다리를 놓을 수가 없고, 기존의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가 없다. 예술도 창조적 파괴를 통해 놀라운 작품이 탄생한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위해 커다란 대리석을 망치와 정으로 쪼개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보고 말했다. '그 좋은 대리석을 것처럼 많이 깨버리면 낭비가 아닙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대답했다. '이 대리석이 깨져 나가야만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을 털어내고 쪼아내고 깎아내고 다듬어야 명품이 탄생한다. 사람의 인격도 깎고 다듬고 갈고 닦아야 빛이 난다. 이런 연마(練磨)과정을 거쳐 보석과 같은 인격을 가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다. 신앙생활도 이런 연마과정으로서 그 첫 번째 과정이 '무너뜨리는 것', 곧 창조적 파괴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파괴'라고 부른다. 이 거룩한 파괴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말씀이다. 말씀은 망치처럼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부수고 쪼아내고 깎아내고 다듬어낸다.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시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